

다니엘서 - 번호 167

예언 해독: 다니엘 11장 10절과 그 너머의 역사적·예언적 의미를 밝히다

Jeff Pippenger

2024-03-30

다니엘서 11장 40절은 마지막 때인 1798년에 시작되는데, 그때 남방 왕의 손에 의해 북방 왕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그 역사는 주전 246년에 프톨레마이오스가 북방 왕국에 복수를 가한 사건으로 예표되었으며, 또한 1798년에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교황을 포로로 잡아간 사건으로도 예표되었다. 9절에서 남방 왕이 애굽으로 돌아간 후, 이어 10절은 북방 왕이 남방 왕을 향해 반격을 감행할 것임을 밝힌다.

그리하여 남쪽의 왕은 그의 왕국에 들어갔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분기하여 큰 군대의 무리를 모을 것이며, 그중 하나는 반드시 와서 범람하며 지나갈 것이다. 그때 그는 돌아와 그의 요새에 이르기까지 분기하리라.
다니엘 11:9, 10.

10절을 성취한 역사에 대한 유라이어 스미스의 주석을 살피기에 앞서, 우리는 "넘쳐흐르고 지나가다"라는 표현에 주목한다. 이와 같이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은 40절에서는 "넘쳐흘러 넘어가다"로도 번역된다. 원문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표현이다. 그 표현은 성경에서 다른 한 곳에서만 발견된다.

그가 유다를 지나며, 넘쳐흘러 범람하여 목에까지 미칠 것이요; 그의 날개를 펴는 것이 네 땅의 너비에 가득하리라, 오 임마누엘이여. 이사야 8:8.

다니엘서 11장 10절과 40절, 그리고 이사야서 8장 8절에서는 동일한 히브리어 구절이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도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 구절의 마지막 단어인 히브리어 "abar"는 10절에서는 "pass through", 40절에서는 "pass over", 이사야에서는 "go over"로 번역된다. 세 곳 모두에서 의미는 본질적으로 같지만, 이사야에는 이들 참조 사이에 또 다른 예언적 연결도 존재한다.

이사야서의 그 구절은 아시리아 왕이 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이르렀으나, 그 도시 자체는 끝내 정복하지 못했을 때 성취되었다. 그는 "목"까지 올라왔지만, 결코 "머리"는 정복하지 못했다. 바로 그 동일한 예언 속에서 이사야는 "머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제시하며, "머리"를 그 왕국의 수도로, 그리고 그 왕국의 왕 또한 "머리"로 규정한다. 그는 "머리"가 곧 왕이자 왕국이라는 예언적 진리에 대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예언을 공부하는 자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으면 견고히 서지 못할 것임을 암시적으로 밝힌다. 그 암시적인 구절은 북방의 왕이 넘쳐 흐르며 휩쓸고 지나가되 오직 "목"까지라고 밝히는 바로 그 동일한 예언의 일부이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 육십오 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한 백성이 되지 못하리라.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8, 9.

시리아 나라의 "머리"는 그 수도인 "다마스쿠스"였고, "다마스쿠스"(수도)의 "머리"는 시리아의 왕 "르신"이었다. 또한 에브라임 나라의 "머리"는 그 수도인 "사마리아"였고, "사마리아"(수도)의 "머리"는 "르말리야의 아들"(베가), 사마리아의 왕이었다. 같은 예언에서, 다음 장의 8절에서, 앗수르의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그리고 8절에서, 그의 예루살렘 포위를 목까지 이르는 것으로 규정한다.

7절과 8절은 두 증인에 근거하여, 왕과 그 왕의 나라의 수도를 함께 나타내는 '머리'라는 예언적 상징을 제시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을 상대로 한 각각 2,520년의 두 예언 모두의 기점을 특정해 주는 65년의 예언이다. 그러므로 이는 매우 복잡한 구절인데, 다니엘서 11장 10절과 40절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 두 절 또한 북방의 왕이 남방의 왕을 공격하는 교전을 지목하며, 이는 이사야서 8장 8절에서 북방의 왕 산헤립이 남쪽 왕국 유다를 공격한 것과 같다.

이 북방 왕과 남방 왕의 이러한 교전들을 서로 연결하는 열쇠는 "머리"와 "넘쳐흐름과 넘어감"이다. 11장 10절에서 북방 왕이 남방 왕에게 보복할 때, 그는 전투에서 이기지만 "머리"는 남겨둔다. 이는 그가 남방 왕의 "요새" "로" "오고, 넘쳐흘러, 통과한다" 때문이다. 10절의 역사는 북방 왕의 남방 왕에 대한 승리를 나타내지만, 그는 이집트(그 요새), 곧 수도-"머리"로 들어가지 않는다.

남방 왕이 이전에 7절과 8절에서 북방 왕을 물리쳤을 때, 그는 '북방 왕의 요새에 들어가서' '승리하고' '포로들을' '이집트'로 끌고 갔다. 북방 왕이 보복으로 거둔 승리에서는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는 1989년에 소련이 휩쓸려 사라졌을 때 러시아, 곧 그 수도(그 머리)는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굳게 서지 못하리라.' 11절과 12절에서 남방 왕으로 표현된 러시아가 국경지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그곳은 고대에는 라피아였고 오늘날에는 우크라이나다.

10절.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분연히 일어나 강대한 군세의 무리를 모을 것이요, 그중 하나가 반드시 와서 범람하여 지나갈 것이며, 그 후에 그는 돌아와 그의 요새에 이를 때까지 다시 분기하리라.

이 절의 앞부분은 복수형으로 아들들을, 마지막 부분은 단수형으로 한 사람을 말한다. 셀레우코스 칼리니코스의 아들들은 셀레우코스 케라우누스와 안티오코스 마그누스였다. 이 둘은 아버지와 나라의 대의를 옹호하고 복수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착수했다. 그중 장자인 셀레우코스가 먼저 왕위를 이었는데, 그는 부친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대군을 소집했으나, 몸과 처지 모두에서 나약하고 소심한 군주였고, 재정이 궁핍했으며 군대를 통제하지도 못해, 불명예스러운 2~3년의 치세 끝에 장군들에게 독살당했다. 그보다 더 유능한 동생 안티오코스 마그누스가 이에 왕으로 선포되었고, 군대를 장악하여 셀레우키아를 탈환하고 시리아를 회복했으며, 어떤 곳들은 조약으로, 다른 곳들은 무력으로 손에 넣었다. 이어 휴전이 있었고, 그 기간 양측은 평화를 협상하면서도 전쟁을 준비했다. 그 후 안티오코스는 돌아와 이집트 장군 니콜라스를 전투에서 격파하고, 이집트 자체를 침공할 생각까지 했다. 여기 분명히 '범람하며 지나갈 그 한 사람'이 있다. 유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계시록, 253쪽.

1989년 소련의 붕괴는 "끝의 때"를 알렸고, 그 구절의 두 아들은 레이건과 부시 1세라는 두 이정표를 나타낸다. 1798년의 "끝의 때", 곧 다니엘 11장 40절이 시작되는 지점 이후로, 로마의 창녀는 잊혀졌다. 그녀는 이세벨로서 사마리아에 남아 있는 반면, 그녀의 남편 아합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면한다. 그녀는 숨어 있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랬던 것처럼 비밀리에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남방 왕에 맞서는 그녀의 대리 군대다. 그녀가 1989년에 보복했을 때, 그녀는 북방 왕으로서 병거와 배, 기병을 동원했다.

마지막 때에 남쪽의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며, 북쪽의 왕은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오리바람처럼 그를 치러 올 것이다. 그는 여러 나라에 들어가 홍수처럼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다니엘 11:40.

보복에서 그녀를 대신하는 세력은 경제력을 의미하는 '배'와 군사력을 의미하는 '병거와 기병'으로 표현된다. 말세에 관한 예언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은 미국의 두 가지 예언적 속성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세벨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이 매매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여전히 이세벨의 권위의 표식을 거부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1989년 소련의 해체를 가져온 것은 교황권과 협력하여 동원된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었다.

다니엘 11장 10절을 성취한 역사는 1989년에 끝의 때를 가리키는 40절 후반부의 역사 속에서 반복된다. 6절부터 9절의 역사는 40절 전반부에서 지목된 끝의 때로 이르게 한 역사를 나타낸다. 다니엘 11장 5절부터 10절은 다니엘 11장 40절의 역사를 완벽하게 보여 주는데, 화잇 자매가 기록했듯이, "다니엘 11장에서 성취된 역사의 많은 부분이 반복될 것이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4절은 마지막 날들의 끝의 때에 두 별의 나라의 둘째 왕인 키루스를 지목한다. 마지막 날들의 '끝의 때'는 1989년이었고, 키루스로 대표되는 둘째 대통령은 예언적 순서를 설정하여 예언을 연구하는 자가 1989년 이후 여섯째 대통령까지 셀 수 있게 하는데, 그는 가장 부유한 대통령일 것이며 세계의 글로벌리스트들이든 미국에 있는 자들이든 글로벌리스트 용의 권세를 격동시킬 것이다. 그 예언적 역사는 이어 성경 예언의 일곱째 왕국, 곧 유엔의 열 왕으로 넘어가, 그들의 주요하고 첫째 되는 왕을 알렉산더 대왕(뜻은 '사람들의 전사')으로 대표하여 지목하고, 인류의 유예가 끝날 때 이슬람의 네 바람이 완전히 풀려 그의 왕국이 궁극적으로 해체되는 일을 밝힌다.

그런 다음 5절부터 9절은 538년에 교황권이 권좌에 확립되기 이전의 기간으로 대표되는 역사를 보여 준다. 이는 장차 북방왕이 될 세력이, 당시 북방왕으로 확립된 셀레우코스가 그랬듯이, 먼저 세 가지 지리적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후 실제 35년으로 나타난 3년 반 동안 북방왕이 통치했으며, 남방왕이 그의 요새로 쳐들어와 그를 사로잡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이후 이집트에서 말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그러므로 그 절들은 1798년 끝의 때에 종결된 역사를 가리킨다.

10절은 1989년의 끝의 때의 역사를 가리키며, 5절부터 9절까지와 함께 40절의 역사를 나타낸다. 30절부터 36절까지의 역사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줄 위에 줄로 두 개의 예언적 선이 있다. 첫 번째는 여섯째와 일곱째 왕국의 지도자들을 다루지만, 여섯째 왕국의 여섯 번째이자 가장 부유한 대통령과 일곱째 왕국 사이에는

공백이 있다.

둘째 줄은 세 가지 장애물 제거의 역사, 북방 왕의 통치 기간, 그리고 그 뒤 1798년에 제거된 이가 누구였는지, 1989년에 이르기까지의 내용, 그리고 이전 줄에서 고레스로 표현된 두 번째 대통령을 다룬다.

11절과 12절은 2절의 부유한 대통령 이후에 일어나는 세 번째 역사적 흐름을 나타내며, 1989년 끝의 때에 있었던 소련 붕괴 이후이면서 16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일요일 법령 이전의 어느 시기에 해당한다.

1989년 끝의 때 이후의 역사는 첫 번째 행에서 2016년에 시작하여 세계주의자들을 선동하는 여섯 번째이자 가장 부유한 대통령에게로 이어진다. 두 번째 행에서는 예언적 역사가 1989년으로 이어진다. 11절과 12절의 라피아 전투("The Borderline")는 13절에 선행하는데, 그곳에서는 최근 패배한 북방 왕이 자기 군대를 회복한 뒤, 16절의 일요일 법 바로 전에 남방 왕을 패배시킨다. 13절에 나오는 북방 왕의 대리 권세는 1989년부터 일요일 법에 이르기까지 통치하는 여덟 대통령 가운데 마지막 인물이다. 그러므로 13절은 일곱 가운데 속한 여덟 번째 대통령의 선거가 있거나 그 이후에 반드시 발생해야 한다. 11절과 12절은 여섯 번째, 가장 부유한 대통령 직전에 시작하여, 일곱 가운데 속한 여덟 번째가 되어 13절부터 15절에 이르는 대리 전쟁의 세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바로 그 동일한 대통령의 선거 직전에 아마 끝나는 것으로 보인다.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남방 왕의 보복은, 10절에서 남방 왕이 당한 패배에 대한 응답이다. 10절은 북방 왕의 승리를 1989년의 사건으로 밝히는데, 그 승리는 미국과 바티칸의 비밀 동맹에 의해 이루어졌다. 북방 군대의 그 승리는 대리전의 첫 번째 전투였다. 고대에 성취된 문자적인 열전은 마지막 날들의 대리전을 예표하였으므로, 따라서 11절과 12절의 승리는 대리전의 두 번째 전투에서 남방 왕의 승리가 될 것이다.

10절부터 15절까지에는 세 번의 전쟁이 있으며, 그것들은 모두 고대에 문자 그대로의 열전(熱戰)으로 성취되었으나, 마지막 날들의 대리전들 가운데 있는 세 전쟁을 표상한다. 첫 번째 전쟁은 1989년에 용을 대적하여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비밀 동맹에 의해 승리되었다. 대리전들의 두 번째 전쟁은 남방 왕의 무신론적 용의 세력에 의해, 교황과 그의 대리 군대의 동맹을 대적하여 승리될 것이다. 대리전들의 세 번째 전쟁은 북방 왕의 대리 군대에 의해 승리될 것이며, 이는 13절부터 15절까지에 표상되어 있다.

예언적으로는 세 번의 뜨거운 세계 대전과, 세 전투로 이루어진 세 차례의 대리전, 그리고 이슬람의 세 화의 전쟁이 있다. 또한 내전과 혁명 전쟁도 있다. 대리전들의 두 번째 전투는 지금 우크라이나, 곧 "국경선"에서 진행 중인데, 이는 라피아로 표상되며, 라피아는 11절과 12절이 역사 가운데 처음 성취되었을 때 남방 왕과 북방 왕 사이의 경계선이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대리전의 두 번째 전투가 수행되고 있는 바로 그 동일한 때에, 영광스러운 땅을 향한 이슬람의 세 차례 공격 가운데 두 번째 공격도 또한 일어나고 있다. 셋째 화의 첫 번째 공격은 2001년 9월 11일에 이르렀으며,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일이 시작되었다. 인치는 때는 미국에서 곧 도래할 일요일 법에 이르러 끝나는데, 그때 셋째 화의 이슬람이 다시 한번 미국을 칠 것이다. 처음과 마지막 타격은 동일하며, 그 둘은

모두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의 음성을 표하는데, 그것은 또한 셋째 천사의 음성이며, 또한 일곱째 나팔의 울림이며, 또한 셋째 화이다.

일곱째 나팔의 소리인 두 음성인 그 두 공격의 중간에, 셋째 화의 이슬람은 2023년 10월 7일 현대의 영적 영화로운 땅이 아니라 고대의 문자적 영화로운 땅을 공격하였다.

그때 시작된 전쟁은, 이제 11절과 12절에 묘사된 라피아 전투가 일어났던 바로 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가자 지구는 남방 유다 왕국과 이집트 사이의 경계선이다. 2023년 10월 7일은 다른 바퀴들 가운데 있는 한 바퀴로서, 반역, 곧 히브리 알파벳의 열세 번째 글자를 표시하는데, 이는 첫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와 함께 "진리"라는 단어를 이룬다.

셋째 화의 이슬람에 의한 영화로운 땅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은 2023년 10월 7일에 일어났으며, 그것은 고대 라피아 전투가 일어났던 바로 그 지역에서, 11절과 12절의 성취로서 발생하였다. 영화로운 땅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은, 예언적 지리 상징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표되는 대리전들의 두 번째 전투와 연결되어 있다.

한 줄 위에 또 한 줄로, 지금 우크라이나(변경 지대)에서 진행 중인 대리전의 둘째 전투는, 셋째 화의 나팔의 둘째 음(2023년 10월 7일)을 포함하며, 그것은 십사만 사천의 인침의 마지막 기간에 성취된다. 그 인침의 경험은 다니엘이 10장에서, 애통의 이십일일 기간 후에 "마라" 환상을 볼 때 예증되는데, 그 기간은 두 선지자가 거리에 죽어 있던 삼일 반이다. 그 환상은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되었다.

히데켈 강의 환상이 표상하는 진리, 즉 봉인하는 진리는 11절부터 15절까지의 예언적 역사에서 성취된다. 그것은 1989년에 시작되어 41절과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까지 이어지는 40절의 역사이다. 그것은 2절의 여섯째이자 가장 부유한 대통령의 역사로부터 3절에 언급된 '알렉산더 대왕'의 일곱째 왕국에 이르기까지 표상된다.

2014년에 대리전들의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되면서 개시된 역사, 그리고 이어서 2015년에 가장 부유한 대통령이 그의 선거운동을 시작한 역사는, 1989년부터 41절의 일요일 법에 이르기까지의 40절의 공백 구간이며, 또한 2절의 여섯 번째, 가장 부유한 대통령으로부터 일곱째 왕국에 이르기까지의 공백 구간이기도 하다. 그것은 2001년 9월 11일 요한계시록 18장의 첫째 음성과 함께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큰 지진의 시간에 둘째 음성과 함께 끝나는 역사이다. 그 역사는 또한 에스겔 12장에서 모든 이상이 성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역사 구간이기도 하다. 그 기간은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화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17.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이 환상은 에스겔의 마음이 어두운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차 있던 때에 주어졌다. 그는 조상들의 땅이 황폐해진 모습을 보았다. 한때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 도시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았다. 즐거움의 소리와 찬양의 노래가 그 성벽 안에서 더는 들리지 않았다. 예언자 자신은 끝없는 야망과 야만적인 잔혹함이 지배하는 낯선 땅의

나그네였다. 그가 보고 들은 인간의 폭정과 불의는 그의 영혼을 괴롭게 했고, 그는 밤낮으로 비통하게 애통해했다. 그러나 그발 강가에서 그의 앞에 나타난 놀라운 상징들은 세상 통치자들의 권세보다 더 크신,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권능을 드러냈다. 교만하고 잔혹한 앗수르와 바벨론의 군주들 위에 자비와 진리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다.

선지자에게는 큰 혼란 속에 뒤얽혀 있는 듯 보였던 바퀴 모양의 복잡한 것들이 무한한 손길의 인도 아래 있었다. 그에게 이 바퀴들을 움직이고 지휘하시는 것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은 혼란 속에서 조화를 이끌어내셨다. 이와 같이 온 세상은 그분의 통치 아래 있었다. 영화롭게 된 무수한 존재들이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악한 자들의 권세와 계책을 제압하고, 그분께 신실한 이들에게 선을 가져다주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요한에게 장차 올 시대들을 위한 교회의 역사를 열어 보여 주시려 할 때,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들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와 같은 이'를 그에게 나타내심으로써, 구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관심과 돌보심을 확증해 주셨다. 요한은 교회가 땅의 권세들과 벌일 마지막 위대한 투쟁을 보여 주심을 받는 동안, 신실한 자들의 최후 승리와 구원도 바라볼 허락을 받았다. 그는 교회가 짐승과 그의 우상과 사생결단의 투쟁을 벌이고, 그 짐승에 대한 경배가 죽음의 위협으로 강요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전쟁의 연기와 소음 너머를 바라보며, 그는 시온 산에서 어린양과 함께 있는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 대신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 그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진 채 유리 바다 위에서 있는 자들'이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보았다.

이러한 교훈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 앞에는 사람들의 영혼을 시험할 때가 곧 닥쳐오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굳게 두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에서 자신의 재림에 앞서 임할 두려운 심판들을 일러 말씀하셨다: '너희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러한 예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마지막 때에 더욱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다. 예언들이 빠르게 성취되고 있다. 주님은 문 앞에 계신다. 곧 모든 살아 있는 이들에게 지대한 관심사가 될 시기가 우리 앞에 열릴 것이다. 과거의 논쟁들이 되살아나고, 새로운 논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세계에서 펼쳐질 광경들은 아직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다. 사탄은 인간을 통로로 삼아 활동하고 있다. 헌법을 바꾸고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는 법을 제정하려 애쓰는 이들은 그 결과가 무엇이 될지 거의 깨닫지 못한다. 위기가 바로 우리 앞에 닥쳐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이 큰 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사야와 에스겔과 요한에게 주어진 환상들 속에서 우리는 하늘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얼마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분께 충성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본다. 세상은 통치자 없는 곳이 아니다. 다가올 사건들의 계획은 주님의 손에 있다. 하늘의 위엄자께서는 민족들의 운명과 그분의 교회에 관한 일들을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 증언, 제5권, 752, 753쪽.

